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임료 달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관 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성경연구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믿음의 삶

아 불로

(고린도전서 3:5~7)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은 세례만 알 따름이라”(행 18:25)고 말합니다. “학문이 많다”는 것은 아불로가 당시에 지혜와 철학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뛰어난 학문적 소양은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성경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 때문에 에베소교회는 그를 탁월한 신학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오실 메시아와 세례요한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설명만으로는 기독교 세례를 온전히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아불로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자질이 좋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열정적이었습니다. 확실히,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불로의 사랑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는 즐거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감사하게도, 그는 장막을 만들던 브리스 길라와 아글라를 만났는데, 그들은 아불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주었습니다. (행 18:26) 그들은 아불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었습니다. 아불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불로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에 대하여 물주는 자로 부르심 이유입니다. 아불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은 진정으로 용기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행 18:27,28)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불완전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주된 문제들은 영적이거나 천부적인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간다는 데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꾼 스스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일꾼에게 임무를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영역에서 일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준비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것 사이에는,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의미로서 균형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꾼들입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불로가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불로는 하나님의 물주는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불로와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바울, 베드로, 어부들, 세리들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쟁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순간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하거나 잘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신 믿음을 실천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신자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도록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진실로 믿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실로 주를 따르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던 아불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위임목사 동정

김성관 위임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십니다. 모든 일정과 영육 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교육신청 시작

오늘부터 하반기 교육훈련원 교육신청을 받습니다. 수요성경공부, 교사 양성부, 찬양대원 양성부 총 3개 과정이 개설됩니다. (수요성경공부)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사무엘서·마가복음·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 5:39) 수 개월 전부터 성실하게 강의를 준비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난 교육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딤후 3:7)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이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하반기 교육훈련원 교육에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교육과정 안내는 본지 8면 참조·신청과 문의는 교육국(내선 473)

2007년 하반기전교·2008년 전교를 위한

9월 CMTC 훈련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56개 팀, 512명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복음의 발걸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2007년 전교가 끝났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에는 섬표와 마침표가 없습니다. (행 1:8)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잠시 쉬거나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 28:18~20) 2007년 전교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8년 전교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교위원회는 전교에 미참한 성도들을 위해서 CMTC 훈련을 9월부터 매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에 있을 CMTC 훈련은 2008년 전교지원을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9월부터 진행되는 CMTC 훈련에 전원 참석하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8)

*CMTC 훈련 계획은 본지 5면 참조



HOW DO WE DO MISSIONS?

(5) Those who sow in tears shall reap with joyful shouting. (6) He who goes to and fro weeping, carrying his bag of seed, Shall indeed come again with a shout of joy, bringing his sheaves with him. (Psalm 126:5,6)

Today's Bible verses describe God's mission plan. This is how we should do missions. Jesus told us,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8~20) Jesus also said,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Mk. 16:15) Together, these three Bible passages give us the full mission plan. Sadly, most of today's churches do not give great attention to Jesus' great commission. Their interests lie in lesser things, like running a corporation, raising money, expanding education programs, etc. Not surprisingly, the popular church's memberships grow while the number of true Christian believers decreases. We must get back to God's plan to reach the world.

According to the Bible, the first thing we need to do is go. We cannot sit around and talk about it. There needs to be forward action. It is easier to serve on a mission board than to go. It is easier to give money than go. It is easier to send someone else than go. It is easier to complain and grumble than go. It is easier to be part of a faction than to get into action.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Jn. 12:24) Do you agree? No one wants to sacrifice or sweat, but those missionaries who go where Jesus wants them to go, walk in the Spirit. They spiritually go forward.

Those who go must weep. The proud and arrogant cannot make results, only those who truly love souls and cry over them. Most people go for the wrong reasons. A general concern for souls is mandatory. Paul testified, "I am telling the truth in Christ, I am not lying, my conscience testifies with me in the Holy Spirit, that I have great sorrow and unceasing grief in my heart. For I could wish that I myself were accursed, separated from Christ for the sake of my brethren, my kinsmen according to the flesh." (Rom. 9:1~3) Paul evangelized with power, for he had the love of souls inside his own heart. Do you have that kind of love? I do not think so, which is why you do not go. You have not wept over souls. Paul cried and suffered and his heart had deep concern over other souls, like Jesus. When Jesus looked upon poor souls his heart wept. A man from a crowd came to

Jesus shouting and crying, "Teacher, I beg You to look at my son, for he is my only boy." (Lk. 9:38) This father loved his son, which is why he came to Jesus crying and pleading. Do you have that kind of heart for others?

Those who go weeping must plant the precious seed. You cannot go and weep and sow other things, such as money, your own great skill, but just the seed. What is the seed? Luke 8:11 says, "Now the parable is this: the seed is the word of God." The sower's seed will fall on all different kinds of spaces, like along a road where birds will eat it up, or upon rocky terrain where the sun will scorch it, or among thorns where it will get choked out, or on good soil where it can produce abundant fruit. (Mt. 13:3~23) Whenever you plant the word of God this kind of thing happens. How can you place the great seed in a great place? Only Jesus Christ, only the gospel, not other humans can produce great results, which is why it is so important to speak only the word of God, sow only the gospel, and rely only on the Holy Spirit.

Going, weeping, and sowing must be followed by reaping. Too many servants are going, weeping, and sowing but forgetting to bring in the harvest. Reaping is part of your mission work. Today's Bible message says that those who sow in tears will also reap with joy, coming again to bring the sheaves with them. Reaping is bringing believers into the church, praying for them, caring for them, and loving them in Christ. We must make efforts to reap, to win people to Christ, and not leave soul winning to others. Sowing and reaping go hand in hand. Acts 2:36~41 says, "Therefore let all the house of Israel know for certain that God has made Him both Lord and Christ—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So then,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three thousand souls." Acts 4:32 also says, "And the congregation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soul; and not one of them claimed that anything belonging to him was his own, but all things were common property to them." Amen.

Let us come back to the principles of mission. Let us return to the work-of winning souls. This narrow way of Christian life brings present and future joy. Please get up and go where the Holy Spirit leads, weep for the lost, sow the word of God, and reap His harvest. 

다음 주일 설교

우리의 선교는?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5,6)



김성관 목사

오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이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교의 모든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교회를 운영하고, 예산을 충당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과 같이 덜 중요한 일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기 있는 교회의 교인수는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선교를 가는 것보다 선교위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가는 것보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가는 것보다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가는 것보다 불평, 불만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어떤 부서의 일원이 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 누구도 회개하거나 맘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복음의 증인들은 성경 안에서 절어갑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울어라

가는 자들은 울어야 합니다. 자존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자들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우는 자들만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선교지에 가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 그것이 바로 선교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바울은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1~3) 바울은 힘있게 전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품고 울어본 적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울며 아파했고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향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가슴으로 우셨습니다.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눅 9:38)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울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씨를 뿌려라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자들은 귀중한 씨를 뿌리고 와야 합니다. 울면서 가더라도 돈이나, 자신의 위대한 능력 같은 다른 씨를 뿌리고 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씨만을 뿌리고 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씨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11은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파종하는 자가 뿌린 씨는 여러 장소에 떨어질 것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리거나, 혹은 돌짜발에 떨어져 햇볕에 말라 없어지거나, 때로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 기운이 막혀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은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마 13:3~23)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씨를 좋은 장소에 뿌릴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뿌리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입니다.

거두어라

선교지에 가서 울며 씨를 뿌린 후에는 반드시 수확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주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선교지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나서는 거두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수확 역시 선교 사역의 일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며 많은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확이란, 신자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한 영혼도 약한 영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수확하는 것은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36~41은 말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온 집이 청대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32은 또한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선교의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영혼을 얻는 사역으로 돌아갑시다. 이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와 미래에 참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추수하십시오. ■

말씀의 소리

교만

(마가복음 14:29~31)



교만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믿게 만든다

교만은 자기를 확신한다. 자기 확신은, 다른 모든 사람은 실패해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자기 확신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며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정말 믿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비교할 때, 우리는 결국 스스로 속게 된다. (잠 28:26 : 고전 10:12)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신자들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참 놀라운 진리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마 16:24) 14교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14교구는 천계산과 우면산을 중심으로 잠원동, 서초동, 우면동, 양재동, 신원동, 원지동, 내곡동, 염곡동의 8개 동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구입니다. 교구 가족은 238세대 612명이고, 9구역 22개 여성구역과 9개 남성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주 안에서 모이기를 잘하는 교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뭉툭 회화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은 교구입니다. 아울러 "서로 사랑하라" (요 13:34,35)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교구입니다. 인간적인 정에 매인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성도들이 모여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는 교구입니다.

현재 우리 교구에서 힘쓰고 있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본질적인 믿음을 추구합니다. 본질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만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믿음은 주님의 일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인데, 우리 교구는 이런 믿음을 사모합니다. 참된 신앙은 행복과 민족, 달콤한 십자가가 아닌 가시 면류관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한한 세상을 믿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마 6:33) 항상 사모합니다. 우리 교구는 이런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교만은 자기 자랑과 허풍을 낳는다

교만은 자랑하게 한다. 베드로는 험주어 말한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31절) 지나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그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함을 의미한다. 그는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요 13:37) 그러나 그의 이런 말은 허풍에 불과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다만 자신의 의지와 방법만을 믿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다. (막 14:37,38) 그의 허풍스런 말은 결국은 부끄러움으로 끝나고 말았다.

교만은 믿음의 실천을 가로막는다

교만은 믿음의 실천을 막는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 앞에 세웠을 때,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사람들속에 섞여 있으려고 했다. (막 14:54) 그는 겁에 질려 있었고 창피했다. 일전에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것을 자랑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떨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은 곤란에 처해 있었고, 베드로는 그것이 무서웠다. 예수님은 중형을 선고받을 운명에 처한 죄인이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이 되었고 인기는 땅에 떨어졌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키겠다고 말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다. 믿음을 실천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원수들 틈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교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몬다

교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 베드로는 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였고, 결국 주인을 배신하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버리고 현대의 유행을 쫓아간다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막 14:68,71) 베드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자신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주인을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교만!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 않은가? 지금 즉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은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행 8:22)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신자가 되자.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14교구

다음으로 전도하는 교구입니다. 기존 성도를 관리하고 교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도하여 영혼관리를 하는 교구가 되고자 합니다. 생령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는 생령을 낳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는 생령을 잉태하고 낳는 교구가 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두 달간의 대심방을 통해 전도대상자와 교회 출석을 통한 하는 사람들을 파악하였습니다. 파악된 내용을 구역자,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 등 교구일꾼들이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구역 내에서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자를 세워 이미 파악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예배를 드린 후에 전도하도록 하고 있고, 일꾼들에게 전도수첩을 배부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구의 사역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역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녹음이 짙게 드리워진 8월의 천계산, 우면산은 이제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산은 초록의 옷을 벗고 형형색색의 가을 옷으로 갈아입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14교구는 참된 믿음의 옷을 입고, 영혼의 가을길들을 위해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14교구의 사역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구형(정로, 14교구장)

“주여! 저 아이들을 고쳐주소서.”

12, 11교구 연합팀

- ✦ 선교를 앞두고 주변의 여전들이 여의지 못하여 지친 몸으로 선교에 입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성도들과 형제, 친지들에게까지도 기도 부탁을 하고서 선교에 동참하였다. 찌는 듯한 불볕 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젊은 팀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감사하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결실로 맺어지길 기도한다. (박숙자 권사)
- ✦ 때로는 찢어져서 바닥에 뿌려진 전도지를 볼 때도 있었지만, 많은 영혼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감사드렸다. (장숙자 집사)
- ✦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계획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달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열심을 다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승리하고 주님 앞에 다 가갈 것을 기도한다. (오명준 권사)
- ✦ 살아계신 주님의 동행하심을 정말 실감나게 체험을 했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곳에서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심정으로 전도할 것이다. (김복수 권사)
- ✦ 넷째 날 소아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딸과 어둠의 영으로 흠과 작은 벌레들을 가지고 노는 어린 딸을 만나게 되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주여! 저 아이들을 고쳐주소서, 앞으로 살 날이 매우 많은데 주님 저 두 딸의 영과 육을 온전케 해 주시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보여주소서.” 아멘. (김정숙 집사)
- ✦ 마을에 가서 가가호호 전도를 할 때에 더위도 아랑곳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대체적으로 복음을 받아 주었다. 잘 알지 못하고 대답했음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리라 믿는다. 훗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복음 증거자들로써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할 것을 소망하니 기뻐다. (조세복 집사)
- ✦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영접기도를 받는 축복이 있었다. 복음을 전할 때 대다수가 거부감없이 맞아주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그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싶어하나 교회화 없어 믿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최해빈 안수집사)
- ✦ 훈련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지리 잡았다. 찌는 듯한 더위에 땀이 줄줄 흘러 눈을 뜰 수 없었지만, 반갑게 미소로 맞이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기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주님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하며 주께 영광 돌린다. (이현진 권사)
- ✦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훈련을 받을 때, 마음 속에서 조금은 거부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선교지에 와서 보니 그 훈련이 정말 많이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무더운 날씨, 각각의 성격차이, 말들에서도 자기부인을 할 때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왔다. (박순애 집사)



뒤섞인 눈물의 의미

이번 선교는 회개와 눈물의 장이었다. 나 자신을 높이며 했던 일도 있었고, 음식 때문에 팀장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일들도 있었다. 심지어는 팀원들과의 대화에서 화를 냈던 적도 있었다. 마음이 무척 아팠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나 다음날이 되면, 여지없이 또 회개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곤 했다. 예수님은 “정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내가 바로 그것의 아내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 이 구제능력의 자식을 용서 하소서.” 회개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역현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났을 때, 나는 주님 때문에 울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갈망과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생각났다. 겉으로나 그 말씀의 의미를 만질 수 있었다. 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때문에 울었다. 찬양을 따라하던 순수한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영접기도를 드리고 있던 20대 중반 아가씨의 눈에서 눈물이 비쳤을 때, 강박관 심령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도, 눈물이 나왔다. 평생에 이렇게 많은 눈물을 계속 흘려 보진 처음이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고있어, 눈물이 쏟아졌다. 내 죄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울고, 지금은 선교지에 나두고 온 자식 같은 그 영혼들 때문에 울고있다. 안타까움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속에서 툭툭 터져나오는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다.

김광근(집사, 6교구)

2008년도 CMTC 훈련

1. CMTC 훈련

- 가. 단기선교를 지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CMTC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 나. CMTC 훈련은 선교훈련과 직무훈련으로 구분하여 3주 과정(총 38회)으로 한다.
- 다. 개설: 2007년 9월부터 실시하여 연중 계속 진행한다.

1) CMTC 선교훈련

실시일자: 매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 실시한다.

구분	첫째 주일 18:10~19:30(80분)	둘째 주일 18:10~19:30(80분)	장소
1교시	선교와 자기부인(오전)	종교개혁의 의미(오전)	김길리움
2교시	종교개혁의 배경(오전)	선교 영성 기도(오전)	

2) CMTC 직무훈련

- ① 대상: 선교지향자는 CMTC 선교훈련과 함께 직무훈련을 같이 받아야 한다.
- ② 실시일자: 매월 셋째 주일 지난 토요일에 실시하며 오전 또는 오후에 실시
9/22, 11/24: 09:00~12:00 / 10/27, 12/22: 14:00~17:00
- ③ 진행: 전체 영성훈련 및 직무 훈련(종무·회계·서기·의료·찬양응답) 중심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시간)	담당자	장소
기초영어 / 영성훈련 (오전)	서영 / 위영 / 김교 / 지도부	김길리움
오전영어(오전)	종교개혁의 배경 / 지영	
직무훈련: 종무·회계·서기·의료·찬양응답 (오전)	각 본교 4명 전문강사	
영성훈련 / 기도 (오전)	선교와 기도 / 부지	
종무 / 미우리 (오전)	선교위원장	

2. 팀장 훈련

- 1) 실시일자: 매월 둘째 주일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에 실시하며
금요일은 기도회에서 참모로 진행된다. 월요일 팀장수련회에 참석해야 한다.
- 2) 훈련대상: 안수집사 장영(팀장은 안수집사를 원칙으로 한다). 간사(팀장 임명자)
- 3) 훈련 내용
 - ① 팀장훈련

시간	훈련내용	담당자	장소
2000~2230(수요일) (종무 2000~2200)	영성훈련 재반사용 (팀 구성 훈련, 팀 평가방법) 선교지 연구회의 및 사역방법	전영문과장/지영 관리본과장/서영	본당1교구
2000~2100(금요일)	영적 성숙이 되기 위한 팀장의 자세	선교와 기도/부지	기도원

② 팀장수련회 (1차: 2007년 10월 1일 / 2차: 2008년 3월 1일)

시간	훈련내용	담당자	장소
1300~1500	사도행전 선교	선교와 기도	베디나움
1500~1620	영성 워크숍	훈련·전영·관리본과	
1620~1650	팀장 기도회	선교와 기도/부지	
1650~1700	종무 / 미우리	선교위원장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9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6일(월) - 8월 15일(수)	11교구	김영록
8월 7일(화) - 8월 15일(수)	에베라부①	변창대
8월 7일(화) - 8월 15일(수)	에베라부②	윤영범
8월 8일(수) - 8월 16일(목)	7·1·17교구 대북부 연합	박성진
8월 9일(목) - 8월 16일(목)	4·2·6·11교구 청년1부·청년2부 연합	문영규
8월 9일(목) - 8월 17일(금)	2·4·5·11 12·15교구 연합	허만선
8월 9일(목) - 8월 17일(금)	할렐루아찬양대③	김종녀
8월 10일(금) - 8월 18일(토)	15·2·14교구 연합	이흥기
8월 10일(금) - 8월 18일(토)	할렐루아찬양대④	문경안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3일(월) - 8월 21일(화)	22교구	윤상철

처음 느껴보는 경험!



이른 새벽 시간,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교회학교 교재인 <충현의 만나>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고생 교재에 들어갈 성경삽화를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며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그려야 할 성경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다시 한 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요즘 매일같이 말씀이 주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성경을 일순로만 읽어서인지 은혜를 받기는커녕 기억도 제대로 못한 채 잘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 잊어버리지 않는 총명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그

림을 그리는 달란트를 주셨으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은 저를 <충현의 만나> 교재에 들어갈 성경삽화를 그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후에 저는 이렇게 기도 했습니다. "주님! 교재에 들어갈 그림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오히려 제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찬송가 208장이 제 입속에서 맴돕니다. 이렇게 말씀과 찬송이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처음 느껴보는 경험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발짝씩 움직여 주시는가?" 모든 것이 감사하며 기쁨이 넘칩니다. "주 예수님! 약한 영과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배종복(집사, 교재연구회)

내 영혼이 주를 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어렸을 때부터 불려왔던 이 찬양은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도 그렇듯이 나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찬송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익숙함 때문에 가사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였고, 찬송의 간결하고도 위대한 메시지를 읽지 못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자기부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라며 자기부인에 대해 고민하던 어느 날 제게,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커다란 위로와 답변을 주셨습니다. 금요찬양집회의 찬양 때였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찬송가 465장의 가사를 읽어주셨습니다. 묵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가사가 울려질 때, 눈을 감고 가사를 묵상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때 주님께서서는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과 같이, 내가 죽어야 구주가 다시 사심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의 고통과 고난을 겪어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제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동행하심과 영광의 기억이 이를 그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부인은 사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조차 '내가 해야지!' 하는 교만의 뿌리로부터 썩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시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뿐니다." 아멘.

이현술(연도별 연주대)

기도원 가는 길

금요찬양집회 후, 기도원으로 가는 길은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 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지 아니하리니 ... 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음생활 이후부터 꾸준히 다녔던 기도원은 육신의 힘을 얻고자 했던 어리석은 나에게 샘물과도 같이 솟아나는 영혼의 힘을 얻는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으로 목마른 사슴이 되어 기도원을 찾아가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기도원으로 향하는 bus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어느새 내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함께 말씀도 나누고,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새 피곤함은 달아나 버리고, 차 안에서의 40분은 아귀를 정도로 빨리 지나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때마다 만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면, 앙상히 뼈만 남은 나의 영혼이 살지는 못 했습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함께 떠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면,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의 모습이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지... 더욱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함께 토요일을 기도원에서 보내는 모습은 나에게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흘러나는 찬양과 하늘에서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을 들으며 또다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염없는 눈물로 주님 주신 은혜가 내게 축복을 고백하게 됩니다.(사 52:7) 피곤이 바다같이 밀려와 시련에 들 때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내게 들려오는 성령의 탄식과 간 구하심은 나를 한 걸음씩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가게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나, 정말 내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마다 변함없이 찾아와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딤후 3:5) 나에게 입한 이 놀라운 구주의 은총은 이제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편 8:9)

김화선(교사, 새가족양육부)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연약함에 얽매어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기독교인이었지만 끊임없이 솟아나는 마음속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기 일쑤였습니다. 단기신교를 통하여 염마모로 가던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나의 열에도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삶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고향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언제나 제게 든든함과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었습니다. 늘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광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는 말씀을 붙잡고 남편이 말씀 안에 순종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은 남편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윤호은(집사, 2교구)

교회탐방 **예루살렘 찬양대****주님을 다시 만날 그 날까지, 오직 주님을 찬양하리!**

매주 금요일찬양의 시에 본당의 찬양대원은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다. 평균연령 65세, 평생 처음으로 찬양대에 서신 분이 태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여 명의 찬양대가 드리는 찬송은 은총의 하모니를 만들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다. 이처럼 음악적인 자질이 아닌 믿음으로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루살렘 찬양대원들을 만났다.

예루살렘 찬양대는?

매주 금요일찬양의 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다. 찬양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특별히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나 찬양대원이 될 수 있다. (노영호 장로, 대령)
매주 수요일 예배 후와 금요일찬양회 두 시간 전에 모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숙 장로, 지희)

찬양대원이 되기까지?

저는 찬양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 못해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찬양대원의 자격은 그런 것이 아닌 '믿음'이라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장종식 은퇴장사)
장로 은퇴 이후에 교회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나이든 사람도 할 수 있는 찬양대가 조직되어서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태진 은퇴장로)
교구 전도사님의 권면을 받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역시 순종은 은혜입니다. (이영자 은퇴장사)

예루살렘 찬양대를 하면서 누리는 은혜는?

전년에 남편과 사별한 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찬양대원이 되면서부터 슬픔의 눈물이 찬양을 통해 감와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천국을 상상하게 되어 저절로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저의 호흡이 끝나는 그 날까지 찬양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김순복 은퇴장사)

저는 집이 멀어서 오늘도 오자마자 30분 후에 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오마려 찬양가사를 암송하면서 교회로 오는 길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경자 은퇴장사)
이제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죄인에게 찬양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장복희 장사)

관절이 좋지 않아서 수업을 했는데 수술 후에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찬양대에 참석합니다. 아파도 누가 안지르라고 했다면 그렇게 못했으 텐데 순전히 주님께서 저를 건지내셨습니다. (이태진 은퇴장로)

장로 은퇴를 2년 만에 상환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찬양대는 마치 저의 영적 건강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저는 이전에 느낄 수 없는 활력을 느낍니다. (박영숙 장로)

지회를 하면서 찬양대원을 볼 때마다 진작로 은혜, 은혜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는지, 오마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박진숙 장로)

**찬양대가 선 뒤로 가장 크게 바뀌어진 나의 모습이 있다면?**

찬양대에 선 뒤로 교회 오는 길이 정말 즐겁습니다. 찬양대원이 된 이후로 저는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찬양회에 정례로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영자 은퇴장사)
찬양은 저의 정신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또는 운동을 할 때에도 항상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가사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박영숙 장로)

교회 올 때마다 제 자리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버스나 전철 안에서 찬양가사를 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장복희 장사)

예루살렘 찬양대에는 저를 포함해서 은퇴장로가 11명이 있습니다. 찬양대를 하기 전에는 모임 때마다 각자의 발마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찬양의 은혜와 기쁨,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태진 은퇴장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는 어떻게?

찬양만큼 찬양 기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제목을 적은 안내지를 매주 받아 집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장종식 은퇴장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다 기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저 놀라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박진숙 장로)

매일 기도를 하며 보니까 복음은 전하는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각자 알게 되었습니다. (김순복 은퇴장사)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오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박진숙 장로)

인터뷰를 위해서 금요일 오후 4시쯤 예루살렘 찬양대 사무실에 앉았다. 연습 시작 1시간 전이었다. 그런데 이미 수십 명의 찬양대원들이 와 있었다. 젊은이들처럼 밝게 웃으며 나누는 이분들에게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것 같았다. 그저 사랑하는 주님의 도구가 된 기쁨과 감사뿐이었다.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한 주님의 계획이 무척이나 기대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출애굽 자를 모으시며 삼상한 자를 고치시며 주의 성자를 배서시니 도다"(사 147:3)

(편집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버가모교회**
(요한계시록 2:12~17)

곳을 "사단의 위가 있는 데"(계 2:13) 즉, 사단의 왕좌가 있는 도시라고 말씀하셨다. 버가모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거나 회개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성도를 또한 죄악된 세상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교회와 성도의 참된 가치는 죄악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악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세상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있다. 즉 주님의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단절된 채 깊은 산 속에 틀어박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한 가운데서 죄에 물들지 않고 항상 거룩한 빛 안에 거하며 그 빛을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엡 5:8)

진실로 버가모교회는 이교자들이 가하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영광을 받았다.(계 2:13) 그러나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이것보다 그들 중에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자들로 인해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계 2:14)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숭배를

하게 한 것처럼 버가모교회 안에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이 들어와 버가모교인들을 꾀어 음행하며 우상숭배한 제물을 먹게 한 것이다. 이들은 복음의 자유를 타락과 방종으로 착각한 것이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며 살지도 무방하다고 버가모교인들을 미혹한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방치하는 버가모교회를 책망하시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내어쫓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신다. 직접적인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같은 교회 내에서 죄 짓는 자들을 보고서도 침묵하는 것 역시 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만일 거룩한 교회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성도가 이에 맞서 싸우지 아니하면 주께서 친히 그 모든 악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네 입의 겹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계 2:16)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증하는 만사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계 2:17) 교회는 외부에서 가시적으로 오는 핍박과 내부로부터 조용히 일어나는 이단 사상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이처럼 양면에서 파괴되는 것을 다 물리침으로써 올바른 교회를 성립하는 것이니 그 직책을 이루어 볼 때에야 비로소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다.

임현덕(목사, 8교구)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35	김학호	18	청년2부	김단용(18)
1336	박희철	16	대학부	류진희(1)
1337	전난1부	25	청년1부	이윤희(1)
1338	남기화	13	청년2부	곽노경(1)
1339	박덕만	13	청년1부	곽노경(1)
1340	박근호	25	외선부	박윤석(9)
1341	류영희	10	청년2부	
1342	백익현	23	청년1부	김효재(9)
1343	안현숙	22	청년1부	박기승(5)
1344	유용재	1	청년1부	장복희(10)
1345	전경애	1	청년1부	이문순(2)
1346	조현하	25	외선부	김영희(13)
1347	이아름	25	외선부	
1348	이아름	25	외선부	
1349	조영철	25	외선부	
1350	박소영	25	외선부	정종숙(21)
1351	정미영	2	청년1부	
1352	김영문	20	청년1부	박근호(19)
1353	강병서	12	청년1부	주윤경(9)
1354	고문미	2	청년2부	
1355	이영애	2	청년1부	
1356	이종희	3	청년3부	이수자(3)
1357	최석현	3	청년1부	이창재(3)
1358	윤종호	3	청년1부	신순자(7)
1359	이일규	17	고등부	이윤재(16)
1360	윤정환	9	청년1부	민동명(6)
1361	이아름	23	청년1부	이진규(6)
1362	오현수	23	청년2부	이진규(6)
1363	임지미	5	청년2부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별 세

- 김연봉 타고교사(김재현 성도의 모친, 이진호 집사의 시모, 6교구 장삼3구역) / 9일 밤세, 11일 장례
- 김광수 성도(조복록 권사의 남편, 김영희 집사의 부친, 최용익 집사의 장남, 10교구 중곡구역, 23교구) / 10일 밤세, 13일 장례

【2007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안내】

수요양성동부 · 오후반 230 - 400	교육기간: 9월 12일 - 11월 28일 (12주간) 출발교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307호) 사무엘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407호)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507호) 요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307호) 매주일 오후 3:00 - 4:30 교육기간: 9월 9일 - 11월 25일 (12주간) 장소: 제1교육관 301호 매주일 오후 3:00 - 4:30 교육기간: 9월 9일 - 11월 25일 (12주간) 장소: 제1교육관 301호
· 자제반 830 - 1000 교사 양성부 현암대원 양성부	교육기간: 9월 12일 - 11월 28일 (12주간) 출발교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307호) 사무엘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407호)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507호) 요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307호) 매주일 오후 3:00 - 4:30 교육기간: 9월 9일 - 11월 25일 (12주간) 장소: 제1교육관 301호 매주일 오후 3:00 - 4:30 교육기간: 9월 9일 - 11월 25일 (12주간) 장소: 제1교육관 301호

*교육훈련원 학생모집 신청자가 교육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충원복지관 직원모집

1. 모집분야 심리치료사 1명, 직업재활기금사업 계약직 3명
2. 지원자격 ① 심리치료사 제2종교육으로 심리치료사, 놀이치료사 자격 소지자 및 예정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 관련 상담, 심리치료 가능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를 놀이로 해결할 수 있음) ② 직업재활기금사업 계약직, 채용요건으로서 사회복지사 1급 및 직업재활사 2급 자격 소지자 및 예정자
3. 제출서류 이력서(사인부착),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4. 제출마감 2007년 8월 24일(금) 오후 5:00
5. 서류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 552-8200(내선 401)

◆ 제1교육원 교사 양성명단

일 시: 8월 26일(토)을 주일
12:20 ~ 13:40
장 소: 1교육관 507호
대 상: 제1교육원 교사현원

◆ 전도위원회 전체 릴레이

일 시: 8월 26일(토)을 주일
오후 3시 10분
장 소: 제1교육관 407호

◆ 권사회 총동원 수요 집회

1,2,3,4지회 전체 릴레이
일 시: 8월 29일(수)
수요일 1부 예배 후
장 소: 칠영리교회

2007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19일 (오늘)	1교시 15:00-15:50 (2교시 16:00-16:40)	기독교 개요 (김종현 목사) 문 답	교육관 309호	세례만? (최정환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만? (안지현 목사)	교육관 307호
8월 26일 (다음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찬양예배, 분당) 오후 3시 30분까지 입장바람	찬양예배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릴) 오후 2시 30분까지 입장바람			

이번 주 새생각기도 담당

	20 (월)	21 (화)	22 (수)	23 (목)	24 (금)	25 (토)	26 (주일)
설교자/기도자	양재용/전홍렬	이희라/김종민	최종철/서진원	하종철/원희준	이성진/김동만	이정준/강호석	양태선/전영희
설교 본문	전 7:15-22	전 7:23-29	전 8:1-8	전 8:9-17	전 9:1-6	전 9:7-12	전 9:13-18

예배담당 안내 (8/22-8/26)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8/22	수요 I	영 생 (요 3:16-21) 김익환 목사	김정규	남 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호산나 찬양대)
8/22	수요 II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요 6:60-69) 최정환 목사	김정규	남 회	주 없이 살 수 없다 (실로마 찬양대)
8/24	금요찬양	양재용 목사	이성진	장승곡	예배상설 찬양대 / 비아몬트 이예스티 / 소프라노 듀엣
8/26	주일 I	우리의 선교는? (시 126:5,6) 전성원 목사	유성택	김연진	《예배 전 찬양》
8/26	주일 II	우리의 선교는? (시 126:5,6) 이희라 목사	하종철	정정진	여호와 하나님 외 / 소프라노 찬양팀(안기주영 찬양대 솔로리스트)
8/26	주일 III	우리의 선교는? (시 126:5,6) 여극근 목사	안창덕	엄복식	올은 전 파르로 의의 찬송 외 / 할렘로 아메스트라
8/26	주일 IV	우리의 선교는? (시 126:5,6) 윤인일 목사	류병희	김정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외 / 네이 이영진(비엔찬양대 솔로리스트)
8/26	주일 V	우리의 선교는? (시 126:5,6) 탁경현 목사	황진설	김정규	축복에서 나는 백성들을 보라 외 / 벨렘 오케스트라
8/26	주일찬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마 19:23-26) 정진호 목사	이성진	장승곡	예쁜 남상중창단 / 뽕뽕 찬양대 / 14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 예배	1.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30	본당
세백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기도회 집회 안내 (☎ 031-766-5425)

집회	시간	차량
최소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1:00	금요찬양회 부속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우리말로, 오후 3시에 드리는 주일 V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로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panish,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등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등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등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청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청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사 랑 부	오후 12:15	제1회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북지관 지하홀
예배다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아부	(주) 오전 8:30~9:00 (금) 저녁 7:00~계 9:30	선교관 1층
새가족육양부	오후 12:15	메다나 홀
충원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어린이교육	주간교육	충원 복지관
국내외국인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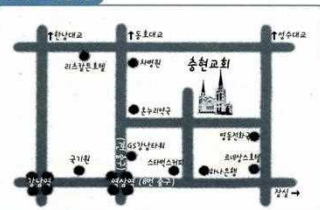
8월

충원 기도의 향

- ① "저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충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25개 교구와 22개 교육현장을 통하여 충원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돈독히 세워지게 하소서.
- ③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관련이 생명력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원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총력 교회주요인 집회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⑥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⑦ 피떡받은 일꾼들이 모든 영혼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중언 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치·동산·복지)과 충원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남광시설 및 분당 외벽색채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⑨ 아프리카나산 반군에 의해 위협되어 있는 영혼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분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르	김은호 / 노광원 / 이병학 / 이준 / 남한수 / 박인기 / 류병희 / 이국근 / 안철덕 / 정진호
김종구 / 최무기 / 이창호 / 차선숙 / 김창남 / 김익환 / 장 훈 / 임현덕 / 이희식 / 최홍철	
김종수 / 임무진 / 김홍용 / 신홍철 / 안지현 / 하종철 / 안지현 / 정승준 / 양재용 / 이상진	
김단용 / 한승규 / 김영수 / 김환기 / 원용철 / 최정진 / 이영희 / 이경준 / 김민희 / 윤수일	
이형수 / 안동원 / 황인국 / 김구형 / 최희철 / 황진설 / 유재진 / 강경구 / 전성원 / 김정규	
이계인 / 박익달 / 이태식 / 박정우 / 권명옥 / 이윤진 / 양태선 / 유성택 / 유원철 / 탁경현	
최종현 / 배준식 / 김영달 / 김소희 / 최지은 / 김한수 / 최희준 / 최경진	
■ 부목사	박인기 / 류병희 / 이국근 / 안철덕 / 정진호
김익환 / 장 훈 / 임현덕 / 이희식 / 최홍철	
하종철 / 안지현 / 정승준 / 양재용 / 이상진	
최정진 / 이영희 / 이경준 / 김민희 / 윤수일	
황진설 / 유재진 / 강경구 / 전성원 / 김정규	
이윤진 / 양태선 / 유성택 / 유원철 / 탁경현	
김한수 / 최희준 / 최경진	
■ 아전도사	윤인숙 / 김덕식 / 홍순재 / 이우주 / 김팔자
김정희 / 김덕희 / 최문식 / 전은희 / 김경자	
김정희 / 이복순 / 류진희 / 한성일 / 임태주	
강영미 / 옥다기 / 이복순 / 장승조 / 전영희	
이혜숙 / 황완관	
■ 찬양감독 강인규	
■ 찬양지휘자 서문성 김현섭	
■ 찬양감독자 김효인	
■ 찬양연주자 장인희	